

관계의 성찰은 화쟁으로 가는 길



원효의 혜안-화쟁(4)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

문(門) 구별에 의한 조건 인과적 이해가 선포하는 새로운 언어능력을 원효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여러 가지의 다른 견해가 엇갈려 쟁론하고 있을 때에, ‘있다’는 견해(有見)에 의해 설한다면 ‘없다’는 견해(空見)와 다를 것이요, 또 만일 ‘없다’는 고집(空執)에 동의하여 설한다면 ‘있다’는 고집(有執)과 다를 것이다. 그리하여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쟁론만 더욱 일어나게 할 것이다. 또 저 두 가지에 다 동의하면 자기 안에서 서로 논쟁할 것이고, 저 두 가지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둘과 더불어 서로 논쟁할 것이다. 이런 까닭에 같지도 않게 하고 다르지도 않게 하며 설한다. ‘같지 않게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취하면 모두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고, ‘다르지 않게 한다’는 것은 그 뜻을 이해하여 말하면 허용되지 않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들의 감정(情)에 어긋나지 않고, 같지 않기 때문에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감정(情)에 있어서나 이치(理)에 있어서나 서로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용하여 말한다’고 하였다.”

견해의 문(門)을 구별하여 화쟁하려면, 다시 말해 견해를 조건 인과적으로 이해하여 이견의 불통과 다툼을 치유하려면, 선취되어야 할 중요한 조건 한 가지가 있다. 담론 주체들 간의 상호신뢰 확보가 그것이다.

인간의 견해는 대부분 사적, 집단적 이익과 연관되어 있다. 파당적 이익 확보와 증대를 위해, 언어의 동일화와 배제의 속성을 적극 활용하여 견해 차이를 정복과 섬멸, 승패의 문제로 대접하고, 견해의 무조건적·절대적 타당성을 주장한다.

우리는 빈번하게 확인한다. 그럴싸한 논리적 주장이 실은 파당적 이익을 보호하고 관철하기 위한 언어적 위장이라는 사실을. 그런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내 의견은 ~한 조건인과에서 타당·부당하고, 당신의 견해는 ~한 조건인과에서 타당·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의견의 조건적 타당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조정해 봅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기 견해를 관철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조건인과를 내세우며 무조건 자기 말이 옳다고 우기는 사람에게, 견해의 문(門)을 구별해 보자고 제안하는 것이 유효할까? ‘나만 손해다. 싸움에서 밀릴 뿐이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 있을까?

인간사 현실은 예상보다 냉엄해 보인다.

나의 선의와 합리적 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기회를 기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는 없다. 단기간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의 구축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만이 냉소와 불신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분기점이 된다. ‘견해의 조건인과를 사실대로 살펴 조건적·부분적 타당성(一理)을 모아 봅시다’라는 제안과 태도가, 단기적으로는 상대에 의해 약용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도,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동시에 그런 선택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회적 여론과 장치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이런 어리숙한 인간 보았다. 실컷 이용해 주마’ 하던 상대가, 지속되는 진정성과 사회적 요청 및 압박으로 인해 마침내 변화되는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단기간의 손익계산에 연연하지 않는 이러한 영웅적 선택과 노력이 가능하려면, ‘인간에 대한 근원적 신뢰’가 필요하다. ‘언젠가는 진실의 진정성에 공감하여 변할 것이다’라는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인간 신뢰가 요구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적어도 원효는 그런 근원적 인간 신뢰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말기저술인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에는 본각(本覺)사상이 핵심부를 차지한다. 일찍이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의 본각(本覺)·불각(不覺)·시각(始覺)의 각(覺)사상을 주목했던 원효는, 사상적 탐구의 완결판에서도 본각사상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본각이란 존재 차원의 본래적 완전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간의 지적 프리즘에 의해 굴절되기 이전의 온전한 존재 지평이 그대로 열린, 지적 각성을 ‘본연적 깨달음(本覺)이라 부른다. 이 본래의 온전한 존재 지평은 폐쇄적이고 굴절시키는 지적 프리즘이 ‘깨닫지 못함(不覺)이고, 오페와 굴절의 어둠을 밝혀 본래의 온전한 존재 지평을 밝혀가는 과정이 ‘비로소 깨달아 감(始覺)이다. 원효는 모든 인간은 본각의 터 위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 본래의 목적을 여래장(如來藏)이나 불성(佛性)이라 부르기도 한다.

현실은 불각(不覺)의 무성한 잡초와 해충으로 인해 옥토의 풍요로운 결실력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옥토에는 본래의 건강한 지력이 있다. 성급하게 농약 살포하고 인위적으로 비료 뿌리지 말고 땅의 건강한 힘을 믿어 잘 간수해 주면, 땅은 서서히 본래의 풍요로운 결실력을 작동하여 마침



서울 효창공원 내 원효대사 동상. 원효 대사의 화쟁은 인과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성찰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

내 잡초와 해충이 어찌지 못하는 건강한 활력을 드러낸다.

원효는 옥토 본래의 자생력과 자기회복력을 ‘본각의 불가사의한 혼숨(熏習)이라 부르며 주목한다. 본각의 지평을 드러내게 하는 조건들을 쉽게 계산하고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에서 ‘불가사의’라 하고, 마치 연기에 시나브로 몸을 맡기면 어느새 온몸에 냄새가 배이듯 서서히 그러나 강력하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혼숨’이라 한다.

내적, 외적 조건들을 갖추어 주고 잘 선택하기만 하면(始覺), 까마득히 있어 있는 줄도 몰랐던 존재 본연의 온전한 지평에 내재하던 자기구현의 힘이 불가사의하게 꿈틀거리며 작동하여(본각의 불가사의한 혼숨), 결국에는 본연의 온전한 존재 지평과 하나가 된다. 이것이 본각·불각·시각의 기본 의미이다.

원효는 ‘본각의 불가사의한 혼숨’에 의한 ‘삶의 새로운 구현’을 굳게 확인한다. 이 존재 차원의 신뢰에 기반하여, 그는 현실의 살벌한 언어 각축전에서 문(門) 구별의 화쟁에 필요한 상호 신뢰를 전방한다.

언어로 싸우는 인간의 행적에는 각대귀 같은 이익 다름만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대세는 아니었다 해도, 언어능력을 통해 진실과 공의를 향해 걸어나는 진보의 자력도 뚜렷하다. 동일화와 배제, 무조건화·절대화 금지와 독단을 극복할 수 있는 조건

인과적 사유의 계발과 실천도, 범주와 유형을 달리하면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 자연과학뿐 아니라 인문, 사회과학의 모든 영역에서는, ‘차이와 관계를 주목하는 성찰’ ‘무조건·절대·본질주의적 사고를 극복하는 관계적 사유와 조건인과적 사유’에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견해의 문(門)을 구별하여 소통함으로써 진실과 관계의 이익을 구현하려는 원효의 화쟁이, 공허한 낭만이 아닐 수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원효는 언어로 싸우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셈이다.

‘견해를 주장할 때는 그 견해를 성립시킨 조건들과 인과관계를 가급적 정확하고 정확하게 드러내라. 다른 견해의 주장을 대할 때도 그 견해를 성립시킨 조건들과 인과관계를 있는 그대로 포착하려고 노력하라. 이를 위해서는 수준 높은 지성의 힘, 진실과 우애를 구현하려는 고품격의 정서적 진정성이 필요하다. 인간에 대한 근원적 신뢰를 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대상화시켜 마치 거리 두고 관찰하듯 성찰하라. 그리하여 견해의 조건인과적 이해와 이를 위한 지성과 감성의 능력이 결실을 발견하면, 애써 노력하여 계발하고 보완하며 향상시켜라. 인간은 그럴 수 있는 불가사의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 위대한 잠재력을 외면해 버리면, 언어의 응달에서 격렬하게 싸우다 공멸할 것이다.’ <공>



행복 스님의
一切唯心造

소가죽으로 신발을 만들면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화 하나 소개하겠다. ‘야단법석’이라는 말에 익숙해져서 잊고 있던 농부들을 위해 저자거리에서 설법을 자주 하셨던 모양이다. 달도 밝지 않은 밤길은 부처님이나 그의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겨 주었을 것이다.

한 부자가 고심 끝에 부처님께 하는 말이다. “저의 재산을 처분해 소가죽을 사서 부처님이 오가는 길에 깔아드릴까 합니다.”

그때 부처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오고 가는 길목에 소가죽을 깔려면 얼마나 많은 소의 희생이 있었는가. 내 발에 맞춰 소가죽으로 신발을 지어 신으면 가는 곳마다 편안할 텐데”

그렇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의 전환이 행·불행을 좌우한다. 한 생각이 일어나므로 증오의 불길기 타오를 수 있고, 한 생각이 잦아들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 테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면 앉아야 한다. 앉아 있거

바람이 되어 흘러가는 물이 되어

바람은 머물지 않는다. 빠르든, 더디든 스쳐 지나갈 뿐이다. 바람에게는 뿌리가 없다. 날개뿐이다. 쉼 없이 어디든 가 떠나가는 것이다. 바람에겐 미련도 없고 바람에겐 머뭇거릴 정(情)도 없는 모양이다.

가끔씩 흔적을 남기긴 하나 모양도 없이 사라져간 뒤의 일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도 바람둥이라는 닉네임(Nickname)이 붙어 다닐 경우가 있다. 이쪽저쪽을 기웃거리며 먹거리 사냥에 질이 난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여자인 남자는 바람둥이들은 대개가 모질지 못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많다. 매섭게 마음을 다잡지 못하는 이들은 어찌 보면 바람의 본성(本性)을 흉내 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흔히들 끼 있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아마추어보다 프로에 가까운 기질을 소유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일 게다.

끼는 본래 바람기, 바람 기운의 준말이다. 머물러 있는 물은 썩기 쉽다. 끊임 없이 흘러가는 물이, 사람이 있어 아이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 사람은 끊임없는 변화를 원한다

든 능력이 있다. 신체 부위가 낮아질수록 지수는 화도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의 전환, 열고 닫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 될 수도 있다.

유명한 기도처, 영험 있는 법당은 내 마음 자세에서부터 비롯됨을 잊지 말자. 가족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가정도 제대로 정돈하지 못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무릎이 아프도록 절을 해도, 그것은 목청으로 하는 노동, 몸 뚫다 오므리는 운동에 불과할 터이다.

가정이 편안해야 하고 가족이 화목해야 참기 도이다. 부부끼리의 신뢰는 신앙의 힘보다 더욱 위력적일 수 있을 터이다.

내가 섬기고 모셔야 할 분은 법당에 모셔진 불상만을 아닐 것이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 내 반려자와 이웃들이 살아 숨 쉬는 부처님이자 보살님이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생각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는 것이다. 마음이 열려야 세상이 환히 열리는 것이다. 미움과 증오, 원망은 내 탓일 뿐 당신 탓은 아닌 것이다. 마음에 안개가 걸리면, 당신 탓이 아닌 내 탓임을 알 것이다. 기도하라 남편과 아내를 위해, 그리고 내 가정과 이웃을 위해.

다이어트(Bank)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여자에게 끼가 있다 하면 기생 기질이 있는 것으로 거북하게 받아들이겠지만, 배우나 작가, 음악가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끼는, 타고난 가능성의 다른 표현이다.

분명한 일은 사람에게서는 누구에게나 바람의 본성이 살아 있다는 점일 것이다. 권태와 불만은 바람의 본성(本性)으로부터 비롯된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를 원하고 있다.

사람에게 바람기운(끼)이 없으면 자기 발전도 창의력도 추진력도 잃게 된다. 바람처럼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본질적 욕구가 문명과 문화, 이데올로기의 각기 다른 꽃도 피워낼 수 있었던 것이다.

자, 그때는 끼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끼가 없는 사람인가. 눈치 살피며 중간에서 어정거리며 서 있을 필요가 없다. 끼는 살아 있는 자의 특권이고, 증명서이기 때문이다. 바람만 불어도 여전(旅錢) 한 냥 마련 없이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자. 당신과 나는 살아 있으므로 가능한 일이다. 털고 바람처럼 일어 설 일이다. 방안에 앉아 있는 영웅보다 밖으로 나다니는 머저리의 삶이 더욱 활기차고 아름다운 법이니까.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팔자(사주팔자)이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무복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에는 왜 명당이여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독,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